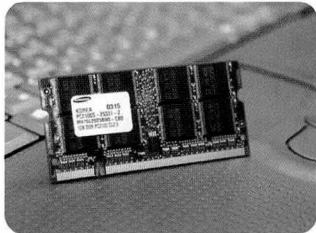




New Product

삼성전자, 노트북용 1GB DDR D램모듈



삼성전자가 노트북 PC에 적합한 대용량·저전력의 DDR D램 모듈을 양산한다. 삼성전자의 이번 제품은 512M 단품(Component) 16개씩을 2열로 배치해 1개 모듈에 탑재한 것으로, 지금까지 노트북 PC에 적용된 D램 가운데 최대 용량인 1GiB(1024M)이다. 이 제품은 512M DDR266과 512M DDR333이 모두 해당되며, 적용된 제조기술은 0.10미크론(μm)의 초미세공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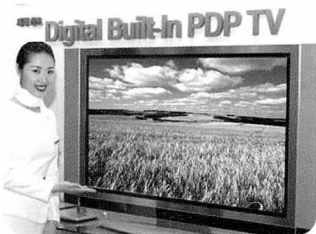
이번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듈사이즈를 최소화”한 것과 “절전기능을 최대화”한 점이다. 무선 모바일 기술이 실현되기 위해선, 배터리 수명을 늘리고 장착되는

부품들의 무게와 부피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독자적 패키지 기술인 STSOP (Shrink Thin Small Outline Package)와 △메모리모듈 기술인 SODIMM (Small Outline Dual In line Memory Module)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이 모듈을 구현했다.

「STSOP」는 칩사이즈가 가로11.76mm 세로11.2mm, 무게는 0.28g인 초소형 D램 플라스틱 패키지 기술로, 기존 제품의 절반 크기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리드 프레임(Lead Frame)의 재질로 구리(Cu)를 사용해, 열 방출 능력을 높혀줌으로써, 열 방출용 팬(Fan)이 장착되지 않는 노트북PC에 적합하다.

또한 데이터 입출력 라인에 대한 고차원 설계기법으로, 전력소비량을 최소화함으로써, 초절전을 지향하는 센트리노PC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LG전자, 디지털튜너 내장 50인치 PDP TV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아날로그 및 디지털 방송을 별도의 디지털 방송수신기 없이 동시에 수신할 수 있는 「디지털튜너 내장 HD급 50인치 PDP TV」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디지털방송 수신기를 내장, 별도의 수신기 구매 없이 UHF 안테나를 PDP TV에 직접 연결만 하면 고선명, 고화질의 디지털 방송을 보다 쉽게 수신할 수 있다. 기존에는 DVI 케이블, Optic케이블, 무선(Wireless) 등의 방식으로 PDP TV와 디지털 수신기를 연결 사용함으로써 수신기와 TV가 분리된 상태에서 신호 손실은 어쩔 수가 없었으나,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디지털 수신기를 TV에 내장해

신호 손실 없이 깨끗한 HD급 영상을 제공한다.

또한, 이 제품은 기존 PDP업체들이 700cd/m² 정도의 휘도에 머물러 있던 PDP발광을 업계 최고 수준인 1000cd/m²이상으로 높여 고휘도를 실현했으며, 1000:1의 높은 명암비를 자랑하는 이른바 K/K PDP Module(1000cd/m², 1000:1 명암비)을 적용해 세계 최고의 화질을 구현한다. 여기에 LG전자가 북미지역 디지털방송 전송규격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VSB (Vestigial Sideband Broadcasting) Chip과 A/V 신호처리 핵심 Chip 등 자체 보유하고 있는 'XR pro·현실과 같은 영상(Digital Reality)을 구현하기 위한 LG전자의 자체 핵심 영상기술을 의미'를 적용, 전 세계 디지털 TV, A/V, 데이터 방송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외에 고효율 전극구조와 발광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듈부분에 새로운 ITO 전극 및 Cell(Fish Bone Type Cell) 구조, 고효율 Gas 등을 개발해 국내 356건, 해외 112건 등 총 468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LG전자, 로봇청소기 '로보킹(ROBOKING)

LG전자가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무인 전자동 청소'를 실현한 로봇청소기 "로보킹(ROBOKING)"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청소할 지역의 벽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낭떠러지와 장애물을 인식, 충돌·추락을 피함과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동선(動線)을 계산해 청소를 실행하며, 청소 완료 후에는 충전기로 자동 복귀하는 국내 최초 로봇청소기이다.

특히 기존의 외산제품이 예약기능이나 리모컨 제어기능이 없어 사용이 불편했던 데 반해 이 제품은 청소기 전원을 리모컨으로 제어하도록 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했으며, 외출시 정해진 시간에 청소하도록 하는 예약 청소기능을 갖췄다.

또한 보조장비 없이도 청소기 전면과 측면에 부착된 총14개(상단 5개, 하단 9개)의 초음파 센서를 통해 장애물을 인식, 충돌을 피하고, 청소기 바닥에 설치된 4개의 적외선 센서로 바닥의 높낮이를 인식, 별도의 설치물 없이 현관, 베란다 등 낭떠러지를 따라가면서 안전하게 청소할 수 있는 '낭떠러지 회피' 및 'Edge Following' 기능, 주위 상황을 고려, 조용히 청소할 수 있는 '정음(靜音)청소 기능' 등을 갖춰 제품 경쟁력을 강화했다.

청소 기능은 흡입구를 향해 양쪽에서 먼지를 쓸어 담듯 청소하는 '트윈 브러쉬(Twin Brush)'를 채용, 미세한 먼지까지 쓸어 담을 수 있다. 또한 벽면을 따라(Wall Following) 청소하면서 청소 영역 및 시간을 계산하고, 주어진 영역을 청소하는 노멀(Normal), 사용자가 방의 크기(Large, Middle, Small)를 지정하면 'Wall Following' 없이 즉시 청소를 시작하는 퀵(Quick), 과자 부스러기를 흘린 경우 등 집중적으로 청소할 부분이 있는 경우 반경 1M의 공간을 회전하면서 청소하는 스팟(Spot) 모드 등 3가지 청소 모드(Mode)를 채용, 효율성을 높였다. 소비자 가격은 2백 49만원



삼성전자, 패션 폰 4종

삼성전자는 최근 휴대폰 외부 LCD가 큐빅으로 둘러싸인 여성전용 패션폰(모델명: SCH-E135)을 출시해, 여성층을 겨냥한 타겟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여성 취향에 맞춰 디자인된 여성전용 패션폰은 휴대폰 내부와 외부 LCD를 모두 손거울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설정에 따라 스팸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는 '스팸 차단' 기능과 특정 지역에서 비상사태 발생시 사용자에게 위험사항을 통보할 수 있는 '긴급 단문메시지(SMS)' 기능이 탑재된 패션폰(모델명: SCH-E160)도 이 달 말에 출시된다. 이 제품은 휴대폰 외부 LCD에 거울기능을 채용했다.

이와 함께, 사물의 본질을 가장 단순하고도 최소한의 스케일로 표현한다는 디자인 철학인 "미니멀리즘(Minimalism)"을 휴대폰에 적용, 세련되고 심플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패션폰(모델명: SCH-X800/SPH-X9100)을 이 달 말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들 제품은 기존의 휴대폰과는 달리 폰의 외부가 통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되어 보다 견고할 뿐만 아니라, 흑진주, 스노우 실버, 금잔디, 흑장미 등 다양한 색상으로 알루미늄 재질과 함께 어우러져 미래 지향적 분위기가 돋보인다.

